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ISSUE **155**
2020 MARCH



모두의 나눔
편견을 깨고 차별을 넘어
성평등 사회로 향합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10주년 앞둔
팝페라 가수 임형주

내 인생의 한마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금 8호 가입
(주)현대정밀 오춘길 대표

사랑 나누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할 때

착한기업

자본주의 속 따뜻한 희망
실천하는 KSD나눔재단



다들 ‘안녕’하세요!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입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인들 간에 인사할 때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안부를 건네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요즘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는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쓰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정성,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Instagram @fruits_of_love Facebook @chestkorea
Blog blog.naver.com/nanum_in
YouTube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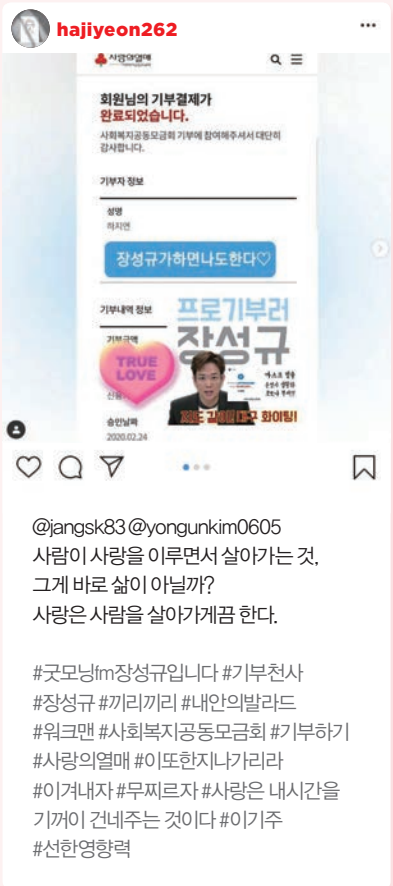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모은 동전 기부하기!! 앞으로 방학마다 고고!
#사랑의열매



하은이가 1년 동안 활동한 유치원 활동집~
코끝 찡해지고 기특해하며 보다가 빵 터짐.
홍삼을 정말 좋아하는 하은이,
사랑의열매 안에도 홍삼을 그려 넣을
줄이야...
“왜여~~ 아프리카 친구들 홍삼 먹고
건강해지면 좋잖아!!!”
아프리카에도 퍼질 너의 홍삼 사랑...
와우!! 사랑의열매를 뒤집어놓으셨다!!!
#소동한하루♡ #홍삼사랑 #나라사랑
#사랑의열매 #홍삼먹고 #아프리카



@jangsk83@yongunkim0605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굿모닝fm장성규입니다 #기부천사
#장성규 #끼리끼리 #내안의발라드
#윙크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하기
#사랑의열매 #이또한지나가리라
#이겨내자 #무찌르자 #사랑은 내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기주
#선한영향력



일주일간 휴원하여 집에 있는 딸내미를
친정아빠에게 맡기고 주민센터에
다녀왔는데... 요즘엔 기부를 카드로 할 수
있네요! 저만 이제 안 거 아니지??
저만 옛날 사람인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신기방기 #옛날사람
#사랑의열매 #카드도가는
#이제알았네 #동사무소
#아니고 #주민센터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그림에는 몇 개의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 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잉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5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5 2020. 03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3월 / 통권 15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② 성평등

04 편견을 깨고 차별을 넘어
성평등 사회로 향합니다

01 나눔태그

10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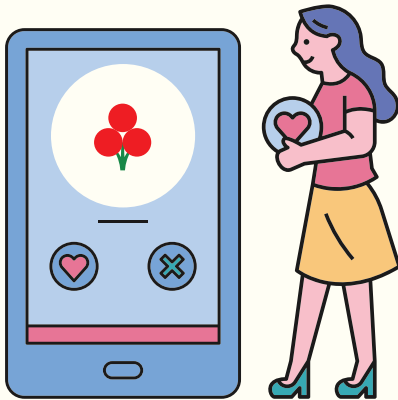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10주년 앞둔
팝페라 가수 임형주
"데뷔하고 처음으로 착한마을에서
'아기 상어' 불렀죠!"

14 내 인생의 한마디

아너 소사이머티 회원 &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금 8호 가입
(주)현대정밀 오춘길 대표

18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2 **착한기업**
자본주의 속 따뜻한 희망 실천하는
KSD나눔재단

26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폐지 팔아 모은 성금 기부하는
'우유통 할아버지' 이상일

28 **나눔 현장**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30 **동네방네 1**
부산 사랑의열매_사랑의 징검다리

32 **나눔 트렌드**
2020년을 이끌 나눔 트렌드 7

34 **새로 쓰는 나눔말 사전**
"장애를 앓는다고요?
장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36 **문화로 보는 나눔**
영화, 책, 공연...
열매 문화 리스트

38 **사랑 나누기**
사랑의열매로 유명인과 기업의
기부 이어져

40 **나눔 소식 1**
"제로페이로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 기부하세요!"

41 **나눔 소식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사업
'푸른코끼리' 업무 약정식

42 **희망2020나눔캠페인**
나눔온도 100도 달성

44 **전국 지회 뉴스**

54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편견을 깨고 차별을 넘어 성평등 사회로 향합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112년이 흐른 지금도 여성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겪기도 한다.

사랑의열매는 독자적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로 성평등을 포함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동등한 교육 기회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은 기존 성폭력 피해 지원과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 법적 조력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피해 촬영물 삭제연계지원, 불안 피해 모니터링까지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활동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간접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 지원 활동가에게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치료를 제공한다. 또 양질의 피해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법률 지원 단과 함께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한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연구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거나, 사이버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피해지원 활동가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가 심리 치료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활동가인 제게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진과 고립감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전문가와 나누고 풀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든든했고, 심리적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업을 통해 교육받으면서 활동에 집중하느라 미뤄둔 역량 강화 시간을 가진 것이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여성주의적 관점과 피해 지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내부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활동가역량 및 피해지원프로세스강화사업에 참여한 활동가



사이버 성폭력 전문 법률 지원단 개단식 모습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당신 곁에 Beautiful Life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폭력 가정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쉼터 이후 살 집과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도 필요하다. (사)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업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해가는 과정을 함께 했다. 정서적 자립을 위해 개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여성주의 의식향상 캠프 등을 진행되었고, 안정적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 등 분야별 자립금 지원, 목돈 마련 적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당신 곁에 Beautiful Life 참여자 한마디

“내 삶이 왜 이런지 자책하기보다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역사회 축제에 참여해 법률 상식 퀴즈, 법률 상담,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가정 문제 예방과 성평등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및 가정 문제 예방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113명의 소송 구조를 무료로 진행했다. 서울가정법원 내 출장 상담 9,006건을 진행하며 법률 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비혼모 가정을 발굴해 주거, 건강보험,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 약 296명의 비혼모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비혼모와 자녀가 함께 떠나는 ‘쉼과 치유의 캠프’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쌓으며 문화적 경험의 소외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 장애인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양성 프로그램

남성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다. 그나마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개인의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는 여성 장애 체육인, 여성 장애 예술인 12명과 함께 체육·예술 체험형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파견돼 차별화한 수업으로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골볼을 알려주며 시각장애인을 보는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강사 정은선

“수업을 진행할수록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강사 김해경



3,4 장애 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 휠체어 농구(위), 휠체어 탁구(아래)를 체험해보는 아이들

지체·발달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다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대부분 폭력 피해 및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 상실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폭력, 방임 등으로 방치된 지체·발달장애인이 천연 제품 프로그램과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횟수가 거듭될수록 천연 재료를 개량해 직접 만든 제품이 늘어나고,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연주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천연 제품을 직접 만들어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니까 재미있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니깐 다들 좋아했어요.”

- 천연 제품 만들기 체험 참가자(조OO, 지적장애3급)

취약 계층,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JOB을 잡아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코딩을 포함한 융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정보화 관련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 계층 여성,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 수강생들은 현장 실습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 여성의 사회 참여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취약 계층 여성 온라인 쇼핑몰

창업(취업) 지원

꿈自樂 : 스스로 만드는 즐거운 꿈

평화사회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여성의 일·생활 균형과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꿈자락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출 지원, 멘토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 지원은 부족했다. 이에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시내 결혼 이민 여성, 장애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전문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또 바로 창업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취업의 문을 넓혔다.

- 1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과정을 밟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
- 2 인터넷 쇼핑몰 창업·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꿈자락 프로그램





우간다 카센다 지역 여성 문해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동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에 속한다. 엔젤스헤이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간다 하키발레 서브 카운티의 51개 마을 중 36곳에 문해 교실을 지원했고, 매년 정부 문해 시험에서 85%의 합격률을 보일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다. 2018년부터는 문맹률 31%(성인 여성은 50% 이상 추정)인 카센다 서브카운티에도 문해 교실을 열었다.

문해 교실에서는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축 사육법, 농사짓는 법, 위생, 영양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공부한다. 특히 문해 교실 수강 후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실제로 마을 내 가정 폭력이 감소했다. 이 외에도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염소나 종자를 지원하거나, 마을 주민과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3 직업훈련센터인 카바타 센터에서 니트 짜기를 배우는 여성들


4 여성 문해 교실을 기반으로 한 지역민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가축 관리 교육이나 농작물 관리 교육을 진행해 가계소득 향상을 돕는다.

팔라완 취약 계층 여성의 일과 양육 양립을 위한 협동조합식 품앗이형 공동육아

많은 필리핀 여성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낮은 남성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 양육과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저소득층 여성은 결국 자녀 양육을 위해 '국제 식모'로 나설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 이에 사단법인 유니월드리는 보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양육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어머니의 변신'을 이끌고 있다. 바리스타, 보육 교사, 이·미용



'INA(타갈로그어로 어머니를 뜻함)의 변신'이라는 부채처럼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변신을 준비 중인 팔라완 여성

사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또한 멀티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 공동육아와 취업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10주년 앞둔 팝페라 가수 임형주

“데뷔하고 처음으로 착한마을에서
‘아기 상어’ 불렀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면 자신의 운명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무대에서 빛나기에 다가가기 힘들어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목소리를 지닌 사람, 바로 팝페라 가수 임형주다.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영부인과 ‘아기 상어’를 부를 줄이야

구로구 개봉2동에서 사랑의열매 착한마을 지정 행사가 있던 날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씨였다. 그런데도 팝페라 가수 임형주는 기꺼이 참석해 행사의 처음과 끝을 지켰다. 2011년 홍보
대사에 위촉된 후 햇수로 10년째를 맞은 임형주는 늘 그랬다. 행사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했다.

“김정숙 여사님도 음악을 하셔서 언제나 제 노래를 감동적으로 들어주세요. 8·15광복 경축 행
사에서 제가 축하곡을 불렀는데, 그때 뵈고 1년 만에 사랑의열매 행사에서 뵈게 된 거죠. 그날
제가 어린이집 일일 교사가 돼 ‘아기 상어’를 불렀는데요, 데뷔하고 처음 불러본 거예요.(웃음)”
임형주는 그날 행사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행으로 동행하게 되어 더 기뻐했다고 했다. 영부
인도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로 공통분모가 많다고 느꼈는데, 처음으로 같이 부르는 노래가
‘아기 상어’일 줄은 몰랐다면 웃었다. 그 어떤 노래보다 열심히 불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임형주는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다. 그런 완벽한 모습에 조금은 다가
가기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직접 만난 임형주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했다. 다가가기 전에
다가와줬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대도, 곡도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 ‘아기 상어’를 불러줄 때처럼 말이다.

“

아너 소사이어티 800호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수
수지 씨와 표지 모델을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표지 모델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 올해로 10년째라 더욱
뜻깊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홍보대사 10주년 앞두고 표지 모델, 뜻깊어

따뜻한 봄을 알리는 3월호 표지 모델로 나선 임형주는 그 어느 때보다
뜻 깊다고 했다.

“2015년인가 아너 소사이어티 800호로 가입하면서 가수 수지 씨랑 같이
표지 모델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이네요.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을 하게 돼 더욱 뜻깊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주는 그동안 사랑의열매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왔다.

2010년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후, 홍보대사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재능 기부로 공연해왔다.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한

“

어느 순간 나눔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얻는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모두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나눔이야말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실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실한
만남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

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활약하는 등 크고 작은 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뿐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참사 당시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음원 수익

전액을 기부하고,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에 가입했다. 이어 단원고등학교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형주의 나눔 활동은 역사가 깊다. 초등학교 6학년 데뷔 앨범 계약금 3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의 개인 수술비로 기부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운명이었는지 몰라도… 1998년에 나온 데뷔 앨범인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캠페인 노래를 재능 기부했더라고요. 이 앨범 뮤직비디오를 보면 마지막에 ‘자료를 협조해주신 유니세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운명처럼.”

이웃과의 나눔, 운명인지 몰라

임형주의 데뷔 앨범은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녹음해 6학년 때 발매했다. 그 시절부터 시작된 나눔이니 일일이 열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의 나눔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성 활동을 데뷔 이래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올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임형주는 왜 이렇게 꾸준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걸까.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눔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얻는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숙명 같다고 느꼈죠. 음악은 일찍 데뷔했으나 일찍 은퇴할 수도 있지만… 나눔은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나눔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임형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임형주의 많은 곡 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그런 그의 진심을 잘 알 수 있는 곡이다. 당시 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임형주가 위로하고 있다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당시 한국인 클래식·팝페라 뮤지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K-POP hot 100 차트에



서 2주 연속 10위를 기록하고, 국내 총 7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종합 차트 1위, 클래식 주간 차트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낳았다. 그렇게 임형주의 진심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모두를 위로했다.



휴머니즘을 노래하는 음악가

“계기는 기적 같으면서 마냥 행복해할 수 없는 애절한 노래예요. 참사 이후 100일 지났을 때… 명동성당 추모의 밤 행사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유가족 몇 분이 오셔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았다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임형주는 유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순간, 음악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위로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했다. 임형주는 대한민국을 위로만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부터 광복절 기념식, 월드컵과 올림픽 등 나라의 모든 경조사를 함께했다. 어떤 평론가는 임형주를 일컬어 “시대와 함께하는 목소리”라고 했다.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가수는 많다. 하지만 휴머니즘을 노래하는 가수는 많지 않다. 임형주는 휴머니즘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낀다.

“국가의 경조사를 함께할 수 있는 목소리라는 사실은 예술가로서 큰 영광이죠. 그동안 섰던 많은 무대를 생각하면 휴머니즘을 노래하는 음악가가 되라는 무언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예전엔 나눔 활동을 해도 제 이미지랄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좋아서 해요.”

임형주는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이 더 큰 위안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실한 만남”이라고 답해왔다고 했다. 임형주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말이다. 진심의 힘을 가진 음악가 임형주의 내일은 생각만으로도 따뜻해진다. 서로를 보듬는 진실한 만남이기에. ❀

- 1 장애인 자립을 위한 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봉사하는 모습
- 2 2015년 80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 3 지난 1월, 임형주는 착한마음 행사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가수 설현과 함께 참석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8호 가입 (주)현대정밀 오춘길 대표

오랜 꿈을 이룬 저축왕

경남 사랑의열매는 3년 만에 사랑의온도탑 100도를 달성했다. 하지만 희망2020나눔캠페인 폐막식 전날까지 나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모두의 애를 태웠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탄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금 목표액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이어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에도 이름을 올린

(주)현대정밀 오춘길 대표 덕분이었다. 글 이선희 사진 박종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실현된 꿈

2015년 한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오춘길 대표는 마지막 꿈을 묻는 질문에 장학재단이나 사학을 설립해 은퇴 후 남은 힘을 그곳에 쏟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그 꿈이 올해 실현됐다. 지난 1월 31일, 기부금을 기부자나 기부 단체가 지정한 지원 사업에 쓰는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전국 8호이자 경남 1호로 가입하며 30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것이다. 기금명은 오춘길 대표와 그의 아내 이름 장여옥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주)현대정밀 길옥(吉玉) 장학기금으로 정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장학금 지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쓸 예정이다.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프로그램이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장학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는 올해 3~4월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남이

2년 동안 사랑의온도탑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왕 가입할 거 몇 개월 앞당겼죠.”

오 대표의 기부금이 아니었다면 경남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올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터. 주변의 칭찬이나 감사 인사에도 그는 무덤덤했다. 30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그려 온 일거기에 부담감이 적었다. 오히려 2011년 아너 소사이어티(이하 아너)에 가입했을 때 훨씬 부담스러웠다. “장학재단에 이 정도 금액을 출연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때를 만났고요. 아너 가입 때만 해도 주변을 의식했죠.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말도 나올 테고 해서요. 또 가족들은 내 뜻을 이해한다고 해도 일가친척의 반응은 어떨지 신경이 쓰였죠. 아너 가입 당시 느낀 부담감이 100%라면 이번 맞춤형기금 가입 때는 30% 정도라고 할까요.”

“나의 나눔 정신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행복한 유산입니다.”

- 오춘길 대표



기쁨이 이혼을 경험하면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눈물이나 실연

오춘길



아니 조사이러티
오춘길 님 1944년생

기쁨이 이혼을 경험하면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눈물이나 실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나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오이게 행복합니다.”

오춘길 님



기부 금액만 놓고 보자면 30배 가까이 많지만, 오히려 부담이 적은 건 주변부터 돌아봤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자신의 가족 외에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형을 대신해 조카 8명을 건사했다. 현대정밀 직원들도 세심하게 챙겼다. 현대정밀에는 직원의 정년이 없고,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으며, 청소직원 또한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대학생, 고교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각각 600만 원과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2007년부터는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설립하며 직원 복지에 소홀한 부분이 없으니 오춘길 대표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없다. 가족, 일가친척, 지역사회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베푼 덕에 그가 꿈을 이룬 순간 주변에는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가득했다.

아이스케키와 폴빵을 팔던 소년

오춘길 대표는 경남 창원시 두메산골이 고향이다. 가난한 농부의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지만 학구열은 누구 못지않았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무척 잘해 급장(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항상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아버지는 그에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주)현대정밀 사옥 1층에는 1979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41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 1월 31일에 진행한 (주)현대정밀 길옥(吉玉) 장학기금 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경남 사랑의열매 한철수 회장과 (주)현대정밀 오춘길, 오정석 대표

잘모고, 잘 나누는 행복한 사람

오춘길 대표는 196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갖

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50회 저축의 날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1966년 육군 갑종장교(소위)로 입관해 빠듯한 군인 월급에도 90%를 저축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군인 월급이 8,650원이었는데 한 달에 5,600원 씩 1년 동안 적금을 넣었더니 9만 3,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왔죠. 시골 출신에, 학교 다니면서 어렵게 돈을 벌어본 내게 저축은 꿈의 수 없는 짜릿한 습관이 되었어요. 열심히 저축한 덕에 회사를 흔들림 없이 경영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 기부의 원동력이 돼요.”

1978년 예편 후 기업인이 되었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달 저금했다. 한 푼이라도 더 저금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인색했다. 학창 시절 이후 자신의 손으로 양말 한 켤레 사본 적 없을 정도로 1원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살뜰하게 모은 돈을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부모님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베풀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먹을 게 생기면 꼭 이웃집에 나눠주셨죠. 나누며 행복해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내 머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솔직히 기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 돈 안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나눔이 나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죠.”

오춘길 대표가 어머니를 꼭 닮았듯, 그의 아들도 그를 빼닮았다. 아들 오정석 대표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 2015년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부자 아너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가입식에도 아들은 오춘길 대표 옆을 지켰다. (주)현대정밀 길옥 장학기금은 막 받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어머니 뜻을 이어받은 오춘길 대표가 있고, 또 그의 뜻을 함께하는 아들이 있으니 말이다. 🍀

중학교에 가고 싶어 가출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야간 중학교에 입학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했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키아이스크림) 장사, 겨울에는 풀빵 장사를 하고 신문 배달, 당구장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니 아버지가 이번에도 고등학교 가지 말고 일손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야.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고등학생 모자를 쓰고 지나가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더라고요.”

1년간 농사를 돕고, 이듬해 사흘간 단식투쟁을 한 끝에 겨우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 마산공업고등학교 입학할 허락받았다. 여기까지 막힘없이 이야기하던 오 대표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그 시절 어렵게 공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내가 어릴 때보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어렵게 공부해봐서 그런지 그 아이들의 고생과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거기서 출발했죠. 현재 장학 기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생각과 결심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착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직업 특성 때문에 그들의 선의나 희생과 봉사를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관념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 ‘위기(We機): 우리를 위한 기회’(이하 위기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글 강보라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노동 환경을 만들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도 향상된다는 '위기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후퇴하면 근로 의욕 상실과 잦은 이·퇴직,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현장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이름은 '극한의 감정노동자'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 씨는 요즘 보람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성희롱이나 신체적 폭력도 종종 겪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대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으로 참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직업에 회의가 생겼다. 함께 일하는 상사에게 고민을 토로해도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말할 뿐이다. 노

1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의 컨설팅 교육은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다.

2 상담 기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 방문 목욕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B 씨도 목욕 중 물이 튈다며 욕설을 듣는 일이 일상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을 인격 모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으로 극복해야 하는 업무로 여긴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안전 실태 조사 결과(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8)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설문 대상 1,476명) 중 약 64.3%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환경적·신체적·감정적·언어적 등)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들이 겪는 직무에 따르는 외상으로는 이용자의 상실(사망), 폭력, 동료 폭력, 직무 관련 사고, 직무 과업 실패 등이 있다. 특히 이용자의 사망과 폭력 등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외상을 남길 정도로 큰 충격을 준다. 이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고독사 등 이용자의 사망에 따르는 문제가 사회복지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런 문제에도 사회복지사들은 마음껏 털어놓을 곳이 없다.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상담받는 사실이 기관에 알려질까 두렵고, 통합 사례 회의에서 계속 만나는 동료들이 저를 동료가 아닌 환자로 볼까 싶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예방 사업 담당자인 제가 우울감을 느끼고, 정신과에 방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위험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상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사후 조치가 없는 경우도 다수였다. 시·군·구 등의 관리 감독 기관도 민원 발생의 책임을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으로 돌리고 있었다.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방치된 것은 물론, 관리 감독 기관의 질책과 방관으로 이중고에 빠진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적 회복과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전과 인권 보장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서울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위기 프로젝트’는 이전의 사회복지사 지원 프로그램과 방향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지치고 힘든 사회복지사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다면, 위기 프로젝트는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



권 보장을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기존 위험관리 매뉴얼과 차별화해 신체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위기 대응과 이용자의 사망에 대한 대응, 심리적 위기 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업무 중에 겪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종사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제작한 매뉴얼은 사회복지 현장의 뜨거운 관심으로 2,000부 중 약 1,500부가 자발적 신청으로 배포되었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파일 형태의 매뉴얼도 550건 이상 지속적으로 다운로드되는 상황이다. 위기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 연 8회의 위기 대응 교육(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연계), 7개 기관의 찾아가는 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여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1, 2 위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부담도 덜게 되었다.
- 3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를 대면하고 대응 매뉴얼 교육도 진행했다.
- 4 구체적 사례를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과 브로슈어





3



4

현장의 수요가 큰 '위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팔 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의 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해 서울시에 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 개정(안)을 요청했 고, 이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 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공포 번호 제7311호). 사 회복지사는 복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므로 이 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복지 국가의 기본이다. 이는 복지 서 비스를 누리는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위기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다. ❀



어느 사회복지사의 고백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위기(We機) 프로젝트에 참가한 3년 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상 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해 익명으로 털어놓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지난해 저는 이전 기관의 이용자가 찾아와 머리를 가격당하는 신체 폭 행과 가슴을 접촉하는 성추행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아 2주간 불면에 시달렸지만, 그 후로도 사건 당사자인 이용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센터 에서 갑작스레 찾아오는 이용자를 귀가 조치해주거나 심리 지원 사업 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셨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으로서 과 하게 예민한 반응은 아닌지 자책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냈 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기 프로젝트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죠. 제 말에 웃음이 귀 기울여주는 상담 선생님 덕분에 참 많은 위안을 받았 습니다. 그 시간 덕에 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스스로 비난 했던 시간을 지나 “그간 잘 견뎌온 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참고만 있었 으니 터질 만하다”고 다독일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제 사례를 들은 직 원이나 회원들이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해주고, 대처법과 후속 조치에 관 한 의견도 내주어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 었다면 저는 더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한 사건으로 시작된 상담이지만 사회복지 이외에 다방면 의 이야기기가 오가며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사회복 지사는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해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복지 서 비스를 누리는 시민도 행복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사회복 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위기 프로젝트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취약 계층 자립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

자본주의 속 따뜻한 희망 실천하는 KSD나눔재단

장애인·아동·청소년·심터 청년을 위한 금융과 나눔의 완벽한 시너지

한국에탁결재단이 출연해 설립한 KSD나눔재단은 자본주의사회가 경제 논리로 차가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곳이다.

KSD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며 포용적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누린 혜택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회 공헌 철학과 가치가 돋보인다. 글강보라 사진제공 KSD나눔재단

완벽한 시너지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자본시장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KSD나눔재단과 국내 최고 모금·배분 전문 기관 사랑의열매가 뭉치자 나눔의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함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SD나눔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009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증권 서비스 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에서 누린 혜택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곳이다. 냉철한 자본시장에서도 따뜻한 희망의 빛을 나누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KSD나눔재단은 단순 기부보다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꽃처럼 빛날 당신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KSD나눔재단이 사랑의열매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다. KSD나눔재단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다양화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랑의열매의 문을 두드렸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사업을 전개한 첫해 예산만 1억 5,000만 원을 들여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쉼터 청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총 44개 기관이 신청한 가운데 KSD나눔재단은 늘푸름,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총 4개 기관을 파트너로 최종 선정했다.

최근 취업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시장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현재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8.3%에 불과한

상황이다. KSD나눔재단은 정신장애인 재활 시설 '늘푸름'에 연 3,000만 원을 지원해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에 나섰다. KSD나눔재단은 정신장애인 취업률 30% 달성을 목표로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은 '꽃처럼 빛날 당신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플로리스트, 식물 매개 활동(원예치유 활동) 교육을 전개하고, 지역 꽃집과 연계해 취업 기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정신장애인 유관 기관이나 독립 주거 정신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사람과 식물이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나눔 놀이터'는 방임 아동에게 돌봄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SD나눔재단은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에 연 3,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를 학원 또는 방과 후 학교에 보내지 못해 놀이터에 방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와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방임 아동을 찾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 품이름 장학 사업
장학 증서 수여식





1

사례 관리를 통해 양육 기법(자녀 양육법)을 전수하고 가족 기능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쉽터 퇴소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가정 폭력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중 쉽터에 보금자리를 틈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만 20세인 성인이 되면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해야 한다. 아동 보호시설 퇴소 청년은 퇴소 후 공공주택 및 자립 지원금 지원 등 공적 지원 체계가 있는 반면, 쉽터 퇴소 청년은 주거 및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제도가 개편되어 보호시설 퇴소 청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지원 체계가 확충되지 않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KSD나눔재단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쉽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공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쉽터 청소년을 위해 KSD나눔재단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청소년이 편한 멘토들과 자조 모임을 구성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 모임을 이어가며 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게 돕고 있다. 진로 상담, 기술·교육·의료 지원과 주거비 지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등 생활 터전 마련도 돕는다. 의지할 곳이 없어 고립되기 쉬운 쉽터 퇴소 청소년의 정서적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사회성을 길러주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채우는 건 물론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쉽터 퇴소 청소년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KSD나눔재단은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쉽터 '꿈다락'에 4,000만 원을 지원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쉽터 퇴소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기존 체계에서 장애로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어려워 지원에 애로 사항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에 KSD나눔재단은 경계성 인격장애 청소년이 사회 부적응 정도를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립 지원 교육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 1 장애 아동용 휠체어 시연 장면
- 2 장애 아동용 휠체어 전달식



2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장학 사업

KSD나눔재단에는 탄탄한 내공이 묻어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융 교육’, ‘증권박물관 관람과 함께 하는 금융 교육’ 등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에 주목한 금융 교육 사업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 ‘꿈이룸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계형 장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빠뜨릴 수 없다. 우선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휠체어를 지원해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 몸의 2차 변형을 막도록 돕는다. 매년 수십 명의 장애 아동이 KSD나눔재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또 ‘꿈이룸 가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영업장 시설 개·보수,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으로 장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 3 장애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 4 장애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 심사 회의 모습

도와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헌과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 투자하는 ‘임팩트금융’ 사업에는 KSD나눔재단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KSD나눔재단은 2018년 유한회사 한국임팩트금융에 1억 원을 출자해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경기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운용한 ‘해봄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탈수급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 밖에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의 자금 순환을 돕고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했다. KSD나눔재단은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사회 공헌 철학과 가치를 지니고 10년 이상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냉철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따뜻한 희망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KSD나눔재단의 진심 어린 마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될 것이다. ♣



4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하는 '우유통 할아버지' 이상일

“넝마주이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나눔캠페인 기간이 되면 경기 사랑의열매에는 어김없이 '우유통 할아버지'가 방문한다.

2011년부터 매년 성금을 전달해왔지만 기부자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플라스틱 우유통에 동전을 모아 갖고 온다고 해서 '우유통 할아버지'로 불렸다.

2017년 나눔리더로 가입하면서 비로소 그의 얼굴과 이상일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글이선희 사진김영길



리어카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에서 이상일 씨를 만났다. 곳곳에 놓인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느라 그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윽고 정리를 마친 그는 리어카를 끌고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다.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에 양옆으로 길게 주차까지 되어 있어 리어카는 도로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가 끄는 리어카 뒤로 서행하는 자동차가 줄을 이었다. 어쩐지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경적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드디어 나타

난 도로 위 주차 공간으로 리어카가 비키자 이번에는 눈이 썰쭉한 주차 관리원이 리어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상일 씨 말로는 해당 구청에 이 씨를 여러 번 신고해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폐지를 주워 기부

이상일 씨는 30년 넘게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터라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폐지만 줍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불

편한 상황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교도관으로 일할 때부터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해왔어요. 퇴직 후에는 씬씬이를 줄이더라도 나눔은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주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폐지를 줍는 이상일 씨를 보고 동네 주민들은 집도 있고 공무원 연금도 받는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느냐고 수군거렸고, 같이 근무하던 교도관 후배는 그를 보고 애써 못본 척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주눅 들 법도 한데 그에게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눔 정신을 물려준 어머니, 뜻을 함께한 아내

이상일 씨의 외투 안주머니에는 손때 묻은 통장이 있다. 새벽부터 저녁 무렵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고 받은 돈은 고스란히 이 통장에 넣는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일하기에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20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든 바로 나눔을 실천했다. 그렇게 매년 기부한 금액이 700

만여 원에 달한다.

“어릴 때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분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투정하면 어머니는 ‘느털(너희들)만 배고프니? 물 한 모금도 나눠 먹어야 그게 이웃인지라’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당시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니 어머니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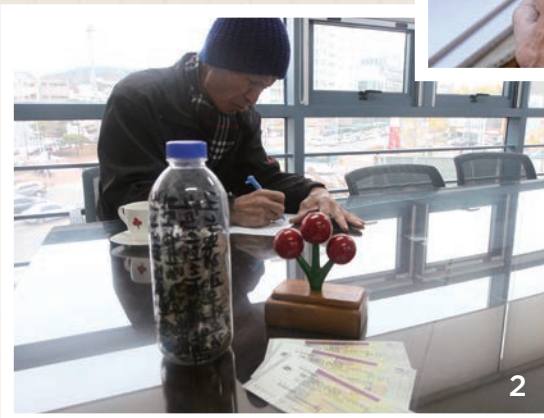
어머니에게 나눔 정신을 물려받았다면, 나눔을 실천하는데 힘을 보탠 건 아내 정구연 씨다. 결혼 후 생활하기도 빠듯한 공무원 월급에도 기부하는 남편을 말리거나 닦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동안 익명으로 기부하던 이 씨가 2017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평생 나눔의 뜻에 공감해준 아내와 함께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올해가 경기도 땅에 자리 잡은 지 5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 한 끼 음식을 하며 식비를 모으고 있어요. 50번째 음식이 끝나는 날 모은 돈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생각이예요. 앞으로도 내가 움적이지 못할 때까지 폐지를 모은 돈으로 나눔을 실천할 겁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모아둔 돈으로 죽기 직전까지 남을 돕고 싶어요.”

이상일 씨는 통장 첫 장에 생활신조를 적어놓았다. “매달 국민이 낸 세금을 봉급으로 받아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봉사 참여하자.” 그가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든, 누가 뭐라든 이상일 씨가 스스로 행복한 넘마주이라 소개하는 이유가 아닐까. ♣



1



2

1 통장 맨 앞 페이지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생활신조

2 2019년 경기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모습



전국 최초 '소다수 나눔 캠페인' 단체 가입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소다수 나눔 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해 화제다. 기부자 발굴에 앞서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더욱 훈훈한 소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시 사랑의열매



세종시 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현판 정비작업과 기부자 상담 관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나눔문화 확산 위해 단체 가입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소다수 나눔 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세종시 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단체 가입식이 열렸다. 소다수란 '소중한 다수의 나눔'을 줄인 말로 1만 원 이상은 CMS 정기기부, 2만 원 이상은 '착한가정', 3만 원 이상은 '착한가게', '나눔리더' 등을 통해 정기 기부에 참여하는 소액 기부 캠페인이다. 세종시 나눔봉사단은 이날 가입식에서 착한가정 18명, 착한가게 7명, 착한일터 2명, CMS 정기 기부 5명, 나눔리더 6명 등이 동시에 가입하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가입식은 봉사단원들이 기부자 발굴에 앞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의견을 모아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다른 시민들에게 기부를 권유하기에 앞서 선택한 일이라 더욱 큰 감동을 준다. 또 나눔문화 확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세종시 사랑의열매 안재승 나눔봉사단장은 "소다수 나눔 캠페인 단체 가입식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 우리 봉사단이 더욱 열심히 활동해 '나눔 중심,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 세종시 나눔봉사단 전 한미희 단장이 2018 시도봉사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오른쪽 끝) 2 세종시 나눔봉사단이 정기 기부자 예우를 위해 방문하는 모습

주목받는 세종시 나눔봉사단

세종시 나눔봉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설립했다. 하지만 2018년 시도봉사단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중 가장 주목받는 봉사단으로 떠올랐다. 수상 당시 세종시 사랑의열매는 직원 수가 적어 기부자 발굴과 관리가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를 안타까워 하던 봉사단은 정기 기부자 중 착한가게 기부자를 중심으로 예우 차원에서 방문하기 시작했다. 4~5주년을 맞은 착한가게 기부자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 정비작업과 기부자 상담 관리 등을 전국 최초로 전개했고, 이 같은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세종시 나눔봉사단의 남다른 기획력과 추진력이 소다수 나눔 캠페인 전국 최초 단체 가입이라는 기록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 나눔봉사단 단체 가입은 소다수 나눔 캠페인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세종시 사랑의열매 홍영섭 회장은 "타지에서 온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솔선수범해 먼저 기부에 참여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봉사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세종시 나눔봉사단의 다음 여정은 무엇일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그들만의 특별한 활동이 기대를 모은다. ❀





2017년에 열린 사랑의 징검다리 700회 개재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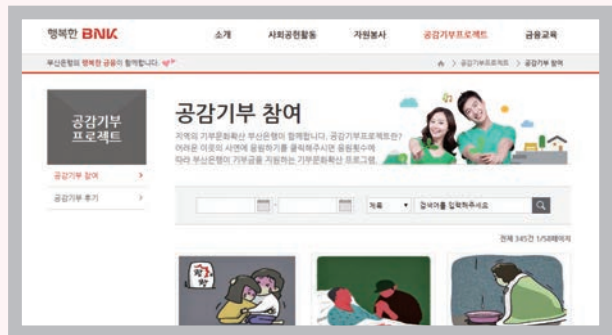
매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는 사랑의 징검다리

사랑의열매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지회마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올해로 17번째 '사랑의 징검다리'를 통해 베풀 끝에 내몰린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 사랑의열매

부산 사랑의열매에서 진행 중인 '사랑의 징검다리'는 제도적 지원 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거나, 여러 사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술 연구 모임인 부산사회복지행정 연구회에서 발로 뛰어 부산 내 복지 소외 계층을 발굴하면 매주 금요일 부산일보 지면에 사연과 함께 성금 기부 방법을 소개한다. 일주일 동안 BNK 부산은행의 공감기부와 부산 사랑의열매에 성금이 모이면 해당 사례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성금 모금 기간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TBN 부산교통방송의 전파를 타고 부산 곳곳에 사연이 전해진다. BNK 부산은행은 웹사이트에 해당 사연을 소개하고 댓글 한 건당 1,000원, 최대 300만 원까지 기부금을 지원하는 '공감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랑의 징검다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03년 7월에 시작한 사랑의 징검다리는 2019년 12월 기준 819건의 사례를 발굴해 지원했다.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았지만, 특히

부산 시민들의 참여가 눈부셨다. 한 사례에 최고 1,546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부산 시민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든 징검돌 덕분에 튼튼한 징검다리가 완성되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이다.



BNK부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감기부 프로젝트에 댓글을 남기면 한 건당 1,000원, 최대 300만 원까지 기부금을 전달한다.

부산 시민의 마음을 울린 '사랑의 징검다리'를 소개합니다

2019년 4월 부산일보에 '끓어질 듯한 통증과 싸우는 영희 씨'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희(가명) 씨 사례에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성금이 모였다. 부산 시민의 따뜻한 성원을 받은 영희 씨는 감사 편지를 전했다.

영희 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거친 세상에 내몰린 영희 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누구보다 씩씩하고 성실하게 삶을 이어갔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된 불화는 결국 다툼이 되어 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혼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 무렵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하지만 생계를 잇기 위해 일하느라 병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뤄야만 했다. 1년을 버티다가 찾은 병원에서 그는 간경화가 많이 진행돼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술비도, 간이식을 해줄 가족도 없었기에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아가던 영희 씨에게 다시금 불행이 찾아왔다. 허벅지가 썩어가는 대퇴부 무혈성 괴사까지 진행된 것. 간경화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는 진통제에 의지하며 뺨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을 견디고 있다. 이제는 일은커녕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

사랑의 징검다리 참여 방법

계좌 성금 부산은행 315-13-000016-3
(예금주 부산사랑의열매)

공감기부 프로젝트 BNK부산은행 사회 공헌 웹사이트(www.happybnk.co.kr)에 접속해 공감기부 프로젝트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의 징검다리' 사연에 댓글을 남기면 댓글 한 건당 1,000원, 최대 300만 원의 기부금을 부산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한다.

문의 부산 사랑의열매 051-790-1415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기에 희망을 잃지 않으려 다짐했지만, 이내 주저앉아버리고...
잠 못난 짓만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고마운 분들께 편지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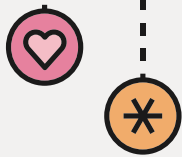
고마운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픔에 지쳐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게 큰 희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 씨의 편지 일부 발췌

키워드로 살펴보는 모금 생태계 변화 2020년을 이끄는 나눔 트렌드 7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년 <기부 및 사회 이슈 트렌드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와 기부 트렌드를 추적하며 한국 사회의 기부와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 방향성을 제시한다.

올해 역시 2020년의 기부 문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 이선희 **참고 자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0 기부 트렌드- 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1

작은 참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생까지 포함하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는 나눔 트렌드 형성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자발적인 작은 참여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가게를 응원하고자 ‘팔아주기운동’을 이끌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참여’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앞으로 이들의 작은 참여가 기부 방법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참여형 기부: 참여하기에서 ‘판’ 깔기로

그동안의 기부자가 단순한 참여자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참여의 판을 만드는 ‘판 조성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소비 트렌드와 관련되어 향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한다. 아이돌 팬들의 동참을 이끌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팬덤 기부’ 등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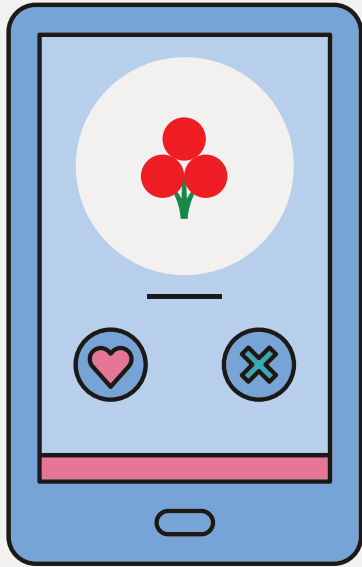


3

기업,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성과 주체성, 주도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가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보이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결과적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PHIL-TECH

5

초불확실성 시장에서 틈새 찾기: 고액 기부 판에 뛰어들기

불확실한 모금 환경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틈새시장으로 주목받는 것이 고액 기부와 유산기부다. 이미 사랑의열매는 2007년에 고액모금프로그램인 아너 소사이어티를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기관들에서도 고액기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2019년부터 유산기부를 잠재적 기부 시장으로 보고 모금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제거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새로운 모금 시장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4

비영리의 사회적 가치

2020년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고, 특히 비영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인지 고찰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공 기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비영리 활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측정까지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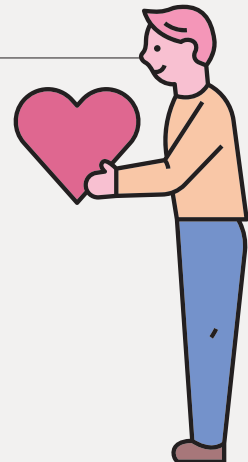
필테크(Phil-tech, 必-tech), 핀테크와 오픈 소스를 활용한 마케팅

간편 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기부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모금 시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이러한 트렌드를 '필테크(phil-tech 必-tech)'로 명명하였다. 나눔(philanthropy)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2020년에는 더욱 필수적으로 되어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간편 결제 시스템 외에 오픈 소스를 활용한 비영리 마케팅의 확산도 주목할 만하다. 소규모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소개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등장했다. 비영리 마케팅은 앞으로 대규모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7

비영리 투명성, 자율과 통제 사이

갈수록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고 현실화되고 있다. 투명성을 위한 통제와 비영리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에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장애를 앓는다고요? 장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중 차별적인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꽤 많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올바르게 쓰지 못한 용어를 쓰는 것이 자칫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글 이선희 참고 자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8 모니터 보고서>

‘장애를 갖다’

현재 법적 용어를 사용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적 용어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장애인, 심신장애인, 맹인, 정신지체인,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간질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재 이는 모두 법적 용어가 아니다. 과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된 법적 용어로 써야 한다.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사용 자체를 권장하는 용어도 알아두자.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혹은 일반인이란 단어를 쓰기보다 비장애인을, 문학작품에서 자주 보는 장님·소경·봉사대신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장애는 약점,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에서 종종 장애인을 설명하면서 ‘장애를 앓다’, ‘장애를 앓던 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게 된다. 무심코 읽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지만, ‘앓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앓다’를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풀어보자면 장애라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쓴다면 은연중 장애를 고쳐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 마찬가지로 뇌성마비를 앓다, 정신지체를 앓다, 다운증후군을 앓다 등도 피해야 할 표현이다.

대신 ‘장애를 갖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가지다/갖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자기 것으로 하다”라고 설명해놓아 소유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갖다’라는 표현에는 장애를 병이나 약점, 결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닌 특성 중 하나로 인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속담에 담긴 차별 표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

‘꿀 먹은 병어리’, ‘절름발이 행정’,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과 관용 어구에는 장애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 속담에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속담과 관용 표현에는 장애인 비하 용어로 분류되는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언어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속담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꿀 먹은 병어리’는 말문이 막힌 또는 말을 못 하는, ‘절름발이 행정’은 조화롭지 못한 행정,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은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듯이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말의 재미나 효율성은 떨어

어지는 게 사실이다. 대체 표현이 낯설어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 19일에 열린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에서 안형준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절름발이 행정, 꿀 먹은 병어리, 출세에 눈먼 등의 관행적인 표현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표현을 기사 타이틀로 버젓이 사용하는 행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사회의 언어 민감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고작 단어 하나 바꾸는 게 대수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바른 단어 사용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영화, 책, 공연... 열매 문화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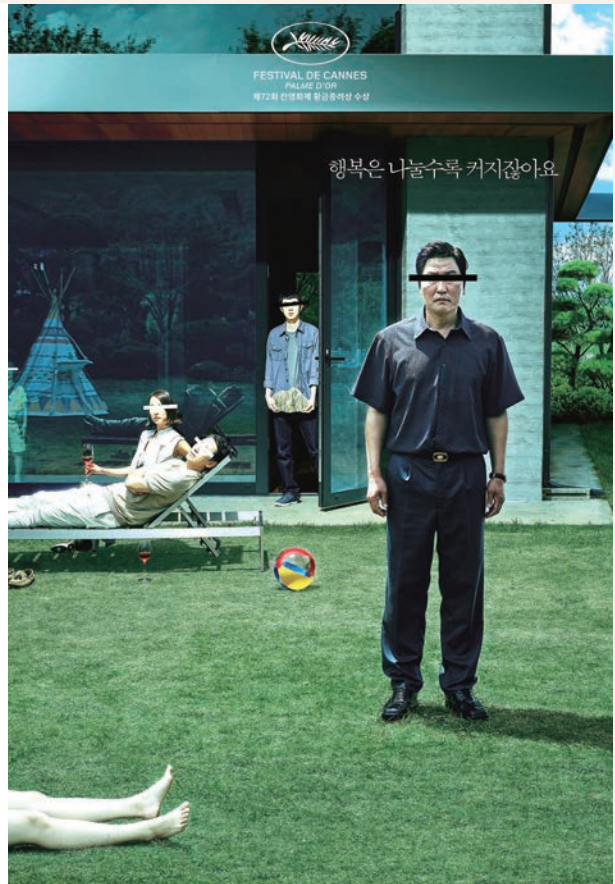
예술로 만나는 이웃 이야기

책과 영화, 그림과 음악, 노래와 춤이 있는 공연까지 모든 예술은 사람을 말한다. 그 속에는 차마 내뱉지 못한 삶의 진실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 알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웃들의 이야기를 문화 속에서 찾아왔다.

글 강은진 사진 각 영화사·출판사제공

빈부 격차라는 주제로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기생충>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는 물론 세계 영화사에 새 역사를 썼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축하를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생충>의 성공은 자막이라는 장벽 넘어 빈부 격차라는 주제에 전 세계인이 공감했기에 가능했다. <기생충>에는 가난과 불안이라는 국적을 불문하는 보편적 정서가 담겨 있다. 가족 모두가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 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견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야기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 법한 모습이다. 봉준호 감독은 계단과 냄새, 반지하와 짜파구리로 빈부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표현 방식은 다분히 한국적이지만, 계급 갈등과 인간의 존엄성 등 인류 보편적 문제를 다루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한다. <기생충>은 선과 악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도식 없이 빈부 격차에 대해 말한다.



**청년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청년 휴밥 보고서〉**

변진경 지음, 들녘 펴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 오늘날 청년들은 고비용 대학 교육, 취약한 노동환경, 길어진 취업 준비 기간, 열악한 주거 여건 등 ‘휴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다 결국 미래마저 잃은 청년들, 청년이라는 말의 이면에 겨우 끼니를 때우며 취업을 위해 잠을 줄이고 쪽방에 갇혀 스스로를 무너뜨려가는 청년들. 이들의 삶을 취재해온 〈시사N〉 변진경 기자의 기사를 엮은 책으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약자와 소외 계층은 진정
보호받고 있을까?**

〈나, 다니엘 블레이크〉

평생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주인공 다니엘이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으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약자와 소외 계층의 안정망이 되어야 하는 복지 정책이 운영자 위주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한 영국의 현실을 위트 있게 조롱한다. 오히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는 이웃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등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얻어낸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라는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니엘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다**

〈자유로운 휠체어〉

**질 로시에 지음, 니콜라 무그
그림, 한울림스페셜 펴냄**

사람들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도울까? 대개는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돕는다.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기분이 어떨까? 그 행동을 고마워할까? 아니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만약 화를 낸다면? 그래픽 노블 〈자유로운 휠체어〉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토니오와 그를 걱정하며 그 주위를 맴도는 비장애인 친구의 우정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게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사랑 나누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할 때”

사랑의열매로 유명인과 기업의 기부 이어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많은 유명인과 기업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글 강은진 사진 각 소속사 및 사랑의열매, 한경DB

많은 스타들 응원 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하지 않을까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연예인 스타들과 기업이 성금과 마스크 등 물품을 기부하며 응원에 나섰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진자를 위로하고,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2월 21일 배우 이영애가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5,000만 원을, 22일에는 배우 박서준이 대구에 음압병동과 이동식 음압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억 원을 기부했다. 또 23일에는 방송인 장성규가 대구에 있는 친구와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5,000만 원을, 25일에는 배우 이병현이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의 위생용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같은 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우 신민아도 1억 원을 기부했다. 배우 김우빈과 공유, 정우성, 손예진, 설경구·송윤아 부부가 각각 1억 원을, 배우 박보영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룹 신화의 멤버이자 배우인 김동완과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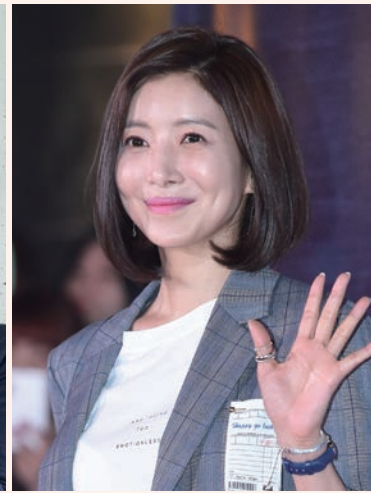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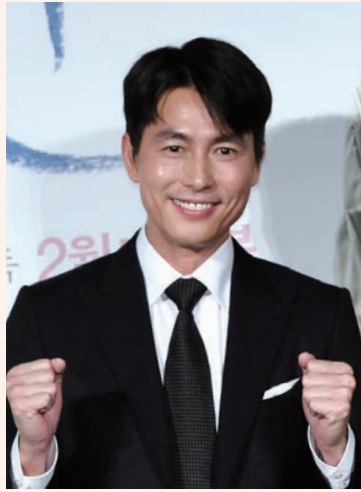
윤세야도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슈퍼주니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스크 1만개를, 가수 홍진영은 마스크 7,500여 개를 기부했다. 또 2월 10일에는 그룹 뉴이스트·세븐틴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업도 기부 행렬에 동참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지난 1월 애경산업과 GS홈쇼핑이 사랑의열매에 각각 2억 5,000만 원, 1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또 동서식품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를 기부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MUSINSA)가 무신사 스탠다드 밸브 마스크 KF94 2만 장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면역력이 약한 감염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2월 24일에는 SK증권이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6일 LG는 50억 원을 기탁했다. 이와 별도로 LG생활건강은 10억 원 상당의 핸드위시 제품을 현물로 지원했다. 또 중식 프랜차이즈 '대천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주)대천부와 전국 8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함께 나서서 마련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사랑의열매는 소중한 기부금으로 피해지역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방역 활동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식료품 및 생필품, 돌봄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복지 서비스를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특별 모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	926101-01-000665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	100-013-921256	
농협	085-01-107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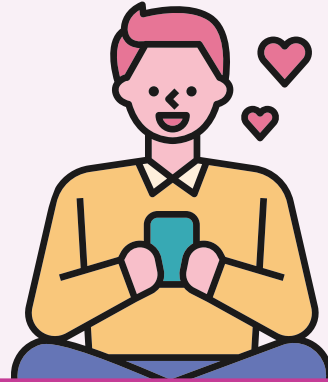
사랑의열매에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 기부하고 싶다면?

제로페이로 기부하기

이제 제로페이로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사랑의열매 QR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기부가 완료된다.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 기부도 가능하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강은진 사진서울시

휴대폰 터치 한 번이면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로페이란 은행앱과 간편결제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불 결제 수단이다. 사랑의열매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통한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논의해 왔다. 이 가운데 '희망2020나눔캠페인'부터 제로페이를 활용한 기부가 시작됐다. 기존의 기부는 직접 기부장소를 찾아가거나 계좌이체를 통하는 등 방법이 복잡해 기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 차감 없이 기부금 전액이 기부단체에 돌아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제로페이를 이용한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제로페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서울 사랑의열매 홈페이지(<https://seoul.chest.or.kr>) 상단에 안내돼 있는 제로페이 QR코드를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제로페이 결제 앱으로 스캔하고 기부액을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기부가 완료된다. 제로페이 회원이 아니라면, 시중 23개 은행이나 간편결제사의 앱(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을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록만으로 바로 가입해 기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제로페이 기부가 가능하다. 사랑의열매와 서울시가 제작한 '제로페이 기부 설명서' 리플렛의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제로페이 기부 설명서'는 서울시의 각종 축제·행사 현장 등에 비치되어 있다. ♡



이렇게 기부하세요!

기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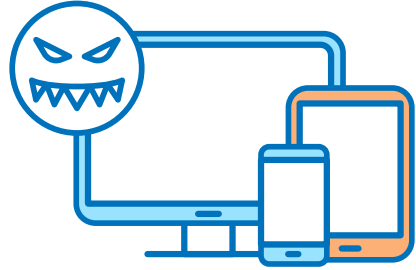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기부운동에 동참해보세요!

- 1 제로페이 회원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회원가입 안내-내지1쪽 참고)
- 2 상단의 제로페이 QR코드 읽기
(**'서울 사랑의 열매'**인지 꼭 확인하세요)
- 3 기부금액 입력하기
- 4 기부완료

※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타 기부 관련 공금한 점이 있으신분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T. 02-3144-0101) 또는 홈페이지(seoul.chest.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래번호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열매·삼성·교육부·푸른나무재단이 손잡았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사업 ‘푸른코끼리’ 업무 약정식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삼성,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이 함께 나섰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업 ‘푸른코끼리’를 시작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업무 약정식을 진행했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 재단 본부에서 삼성, 교육부, 푸른나무재단과 ‘푸른코끼리’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교육부 박백범 차관,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과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성인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IT와 연관 있는 5개 전자 계열사가 함께 푸른코끼리 사업을 시작한다. 사이버폭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

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운영,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향후 10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학원 폭력은 그 뿌리가 깊다”면서, “푸른코끼리 사업을 통해 학원 폭력 근절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성인희 사장은 “삼성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로 대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랑의열매와 교육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해 정책 제언, 행정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기념 촬영 중인 교육부 박백범 차관,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성인희 사장,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



희망2020나눔캠페인 나눔은도 100도 달성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도 나눔 목표액을 달성하며 사랑의온도탑은 최종 100도를 기록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온도탑의 열기 덕에 추위를 잊은 현장을 소개한다. 글 김현정 사진 김기남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0나눔캠페인이 폐막식을 끝으로 73일간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했다. 아나운서 문소리와 박준수의 사회로 진행된 폐막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배분 기관 대표와 시민 기부자 대표들도 함께했다. 장애를 딛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받은 연봉의 절반을 기부한 김혜인 씨와 결혼식 비용을 기부한 서울 1호 '부부나눔리더'인 은재영·이수진 씨 부부, 기부명문가 가족 대표로 참가한 팜티람 씨,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김연순 사무총장이 캠페인 경과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인 성금은 총 4,257억 2,468만 원에

달한다. 당초 나눔 목표액이던 4,256억 8,900만 원보다 약 3,600만 원을 초과 달성하며 사랑의온도탑은 최종 100도를 기록했다. 김연순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날인 1월 31일에 간신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으며, 2005년 시작한 착한가게의 3만 호 탄생과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쪽방촌 주민들의 나눔을 캠페인 기간 중 특히 의미 있는 기부 사례로 꼽았다.

이어서 예종석 회장이 캠페인 폐막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열매는 캠페인에서 모인 나눔 모금액을 4대 나눔 목표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



부부나눔리더 서울 1호 은재영·이수진 부부

“평소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봉사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기부한 결혼식 비용이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 사회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결혼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기부명문가 가족 대표 팜티람·백규현 부부

“음악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웃과 나누는 것이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연봉의 절반을 기부한 김혜인

“제가 네 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는 노숙인 모자가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사랑의열매는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이웃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숙인도 해당합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열매에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정신 질환을 앓는 이웃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으로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준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회별로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종료하며, 사랑의온도탑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본 좋은 결실을 맺은 지회를 소개한다.



3년 만에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한 경기 사랑의열매
최근 2년간 사랑의온도가 각각 83도와 84도에 그쳤던 경기 사랑의열매가 322억 900만 원을 목표로 도민에게 성금을 모금해 3년 만에 사랑의온도 100도를 기록했다.



나눔 목표액 역대 최고 경신한 대구 사랑의열매
대구 사랑의온도탑이 108.1도를 기록하며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모금액은 108억 3,200여만 원으로 이는 대구 사랑의열매 설립 이후 최고액이다.



경남 사랑의열매, 3년 만에 목표 달성
나눔 목표액을 넘는 93억 원을 모금한 경남 사랑의열매가 캠페인 시작 이래 역대 최고 모금 실적을 달성하며 100.5도를 기록해 3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중양회



축구 선수 이동국, 코로나19 예방 위해 마스크 2만 장 기부

K리그 간판 스트라이커인 전북 현대모터스 FC 이동국 선수가 지난 2월 13일 사랑의열매에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나눔으로, 축구계의 만능선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전날 2020 AFC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 출전하는 등 2020 시즌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나눔을 실천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마스크는 이동국 선수와 아들 이시안 군이 홍보 모델로 활약한 제품으로, 그룹홈 입소 아동·청소년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국 선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며 “많은 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동국 선수는 지난해 팀의 주장을 맡아 전북 현대모터스 FC의 2019 시즌 K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또 팀 내 득점 3위 랭킹, K리그 최초 통산 300호 공격 포인트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이뤘다. 올해도 전북 현대모터스 FC의 스트라이커로 그라운드를 누빌 전망이다.

서울



에코글로벌그룹, 나눔명문기업 서울 3호 가입

다니엘 헤니, 이수경, 최유화, 공정환 등이 소속된 (주)에코글로벌그룹(대표 마틴)이 지난 2월 10일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서울 3호로 가입했다. 2017년부터 소속사와 소속 배우가 함께 기부금을 조성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글로벌그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소속 배우인 다니엘 헤니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주)수미, 1,800만 원 상당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전달

친환경 유아용품 브랜드 네이처러브메레를 보유한 (주)수미(대표 서정은)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사랑의열매에 소비자가 1,800만여 원 상당의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기부했다. 전달받은 세탁세제 7,500여 점과 섬유유연제 6,900여 점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외 두 곳을 통해 서울 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수미 유진석 과장은 “환경문제가 심각할수록 청결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경기



동우화인켐(주), 결식아동 지원 성금 전달

지난 2월 5일, 평택시청에서 동우화인켐(주)의 결식아동 지원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2,038만 8,000원으로 평택시 관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동우화인켐(주)은 경기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총 3억 831만 원에 달한다. 동우화인켐(주) 임승훈 상무는 “결식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하고 성장하도록 계속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청룡대대, 희망 저금통 나눔 릴레이 10호 탄생

이천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 조준범 중위와 소대원 일동이 지난 2월 13일 경기 사랑의열매에 희망 저금통을 전달했다. 조준범 중위는 현혈 봉사 50회(금장)를 달성한 기쁨으로 함께 근무하는 소대원들과 뜻을 모아 청룡대대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 릴레이 희망 저금통 기부에 동참했다. 조준범 중위는 “작은 정성이지만 소대원들과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마음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차량 지원 사업으로 차량 17대 지원

지난 1월 22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의정부시 의정부예충 상설 야외 무대에서 '2019년 지역사회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차량 지원 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 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총 17개 사회복지 기관을 선정했으며, 경승용차 5대와 중형 승합차 12대로 총 4억 원 상당의 차량 17대를 지원했다.



일진약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부

일진약품(회장 조길수)은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1만 장을 기탁했다. 마스크는 성인용·아동용 각각 5,000장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일진약품 조길수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 추가로 긴급 생산했다”며 “이번 기부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강원



강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1230호·1231호 동시가입

지난 2월 3일, 원주시에 위치한 금산건설(대표 김은영)과 대원스틸 산업(대표 여성춘)이 강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1230호와 1231호로 가입했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해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랑의열매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다. 강원 사랑의열매 한만우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해준 김은영, 여성춘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자회 수익금 기탁한 푸른솔어린이집 원아들

춘천시 푸른솔어린이집(원장 최문정)이 지난 2월 12일, 원아들이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19만 3,950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춘천 시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최문정 원장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함께 나누고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



유치원 졸업 기념으로 나눔 실천한 김선우 어린이

올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김선우 어린이가 경남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성금이 든 봉투와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유치원 졸업을 기념하며 이웃 돕기에 참여한 것.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돕고 싶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는 김선우 어린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배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는데, 이렇게 스스로 나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규 기획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는 현장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신규 기획사업 주제를 발굴하여 지난 2월 2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문화 여가 접근권 향상지원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



경북 사랑의열매, 300번째 나눔리더 맞이해

지난 2월 4일, 영양군청에서 나눔리더 5인의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디지털LG프라자 김연희 대표, 영양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주익환 단장,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조성대 주무관, 태극전기 이안우 대표, 이인형건축사사무소 이인형 대표가 단체로 가입하며, 경북 사랑의열매는 300번째 나눔리더를 맞이했다.

영양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나눔리더 1호로 가입했으며, 이번에 6명으로 늘어났다.

광주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사랑의 1004 운동 기금 전달

지난 2월 4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사랑의 1004 운동'을 벌여 모은 기금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사랑의 1004 운동은 광주 지역 농협을 대표하는 나눔 운동으로, 2011년부터 임직원 성금을 조성해 53회에 걸쳐 총 5억 3,212만 원을 기부했다. 또 현재까지 546명에게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 첫 농업인부부 아너 탄생

경북 영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첫 농업인 부부 아너 회원이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남편 권용호 씨의 뒤를 이어 부인 김동조 씨가 지난 2월 6일 아너로 가입한 것. 이로써 두 사람은 경북의 열 번째 부부 아너가 됐다. 김동조 씨는 “나눔도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남편을 따라 가입하게 됐다”며 “우리 부부를 보며 더 많은 이가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지난 2월 18일, (주)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남대학교에 몽골 유학생 장학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군 대표이사는 “이 장학금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격려하고, 학업 의지를 고취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바램을 전했다.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성금 전달

지난 1월 31일,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회장 김상태, (주)평화발레오 회장)는 대구시장실에서 대구상공회의소 회원 기업들이 모은 성금 7억 4,456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 금액은 사회공헌위원회 역대 성금 중 최고액이다. 김상태 회장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모금을 계획했다”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좀 더 나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이월드, 이웃사랑 성금·성품 2억 5,000만 원 기탁

(주)이월드는 지난 1월 22일, 대구시청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과 액세서리는 형편이 어려운 대구시 이웃 7,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대구를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이월드는 저소득 가정 아동, 생활보호 대상자, 새터민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유병천 대표이사는 “우리의 정성이 잘 전달되어 더 행복한 대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한 대전 사랑의온도탑

지난 1월 31일, 대전 사랑의열매는 대전시청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다. 대전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기간 동안 총 64억 원을 모금하며,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2019년 진행한 ‘100인의 나눔리더 기부 릴레이 운동’에 많은 대전 시민과 지역 대표가 참여해 100명의 나눔리더 회원이 탄생하는 등 대전 시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롯데케미칼(주)연구소, 희망나눔 장학금 600만 원 전달

지난 2월 18일, 롯데케미칼(주)연구소가 대전 사랑의열매에 희망나눔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2019년 임직원이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한 ‘착한일터’ 성금과 연구소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대전 지역 학생에게 지원한다. 롯데케미칼(주)연구소는 2014년부터 임직원이 성금을 모아 기부해왔으며, 누적액은 3억 3,000만 여 원에 달한다.

부산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31일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 부산 아너 클럽 박성진 회장, W부산 아너 이정화 회장 등 80여 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참석했다. 신정택 회장은 “2019년에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했다”며, “부산 아너들의 활발한 봉사 활동과 교류 활동으로 ‘올해의 아너 클럽’으로 뽑힐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주)정현전기물류, 전 직원 착한가정 동시 가입

지난 1월 23일 (주)정현전기물류(대표 오상훈)의 전 직원 9명이 착한가정에 가입했다. 이 중 반려견 이름으로 가입한 ‘구삼이네 가족’은 부산의 반려견 착한가정 2호로 탄생했다. (주)정현전기물류는 2017년 착한가정에 가입한 이후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오상훈 대표는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 협약식 체결

세종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11일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정은화)와 13개 지역아동센터장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공동 모금 제도 정착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세종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하는 지역아동센터 추천 지정 기탁금의 배분과 각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들어오는 기금의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정은화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의 아동복지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계룡건설과 KCC 세종공장, 이웃사랑 성금 전달

지난 2월 13일 계룡건설과 KCC 세종공장(공장장 이병원이)이 세종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계룡건설에서 2,000만 원, KCC 세종공장에서 5,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는데, 이는 세종시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큰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산 중구청 공무원 일동, 성금 4,000만여 원 기부

지난 1월 20일 울산 중구청 공무원 일동이 울산 사랑의열매에 '2020년도 중구청 직원 월급 끝전과 사랑의열매 성금' 4,075만 8,600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중구청 직원들이 매월 급여 중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모은 희망 복지 기금 3,899만 5,600원과 사랑의열매 성금 176만 3,000원을 합친 것이다. 이들이 전달한 성금은 울산 중구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동강병원 간호사회,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울산 동강병원 간호사회(회장 우성숙)가 지난 1월 30일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해 동강병원 간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제37회 동강병원 나이팅게일 먹거리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는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과 중구 지역 동장들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모범 학생 10명을 선발해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포스코건설,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지난 1월 23일 포스코건설(사장 한성희)이 인천 사랑의열매에 사회공헌 성금 2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포스코건설은 2007년부터 인천 사랑의열매에 약 30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 최종진 본부장은 "우리 이웃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0년 사회복지현장 차량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30일 사회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복지 현장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인천 내 사회복지 기관·시설·단체의 사회복지 현장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차량을 직접 구매해 선정 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윤 사무처장은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주)삼성인베스트먼트 임홍식 대표이사, 성금 전달

(주)삼성인베스트먼트 임홍식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3일 전남 사랑의열매에 영광읍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임 대표이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전남 75호이자 영광 9호 회원이기도 하다. 1979년 동네 이웃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해주면서 나눔 활동을 시작한 임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등 기부 영역을 넓혀왔다. 임홍식 대표이사는 “영광읍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일성레미콘(주) 장영철 회장, 1억 원 약정

지난 1월 16일 일성레미콘(주) 장영철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2020년 첫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장 회장은 전남의 94번째 회원으로, 순천에서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9호 회원이 탄생했다. 장 회장은 향후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제 작은 나눔이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져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입 소감을 밝혔다.

전북



전북 사랑의열매,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전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20일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해 1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보탬이 되기 위해 진행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용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전대학교 봉사동아리,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기부

지난해 12월 13일 전주 기전대학교의 사회복지상담과 봉사동아리 어울림이 회비를 모아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중 50만 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지원되었다. 나머지 150만 원은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어울림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본부, 2억 7,500만 원 기탁

지난 1월 20일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본부(이하 나눔운동본부)에서 임직원들이 모금한 2억 7,5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제주농협은 지난 2006년에 나눔운동본부를 결성한 이후 활발한 기부 운동을 펼쳐 총기부액이 27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농협 희망드림 프로젝트, 농촌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청소년 장학금 지원, 특기적성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돌잔치 축의금을 기부한 영웅이네 가족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강상부·정승현 씨 부부가 지난 1월 28일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2016년 큰아들 강영웅 군의 돌잔치 축의금을 기부한 데 이어 작은딸 강영재 양의 돌잔치 축의금 일부를 기탁한 것이다. 아버지 강상부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영웅이와 영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말했다.

충남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위문품 전달

지난 2월 11일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지점장 김기돈, 이하 모다아울렛)이 충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 주민 위문을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장과 생리대 2만 개를 기탁했다. 모다아울렛의 지점장과 직원들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김 지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산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과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탁 의도를 밝혔다.



에터미주식회사, 공기청정기 300대 기탁

에터미주식회사가 지난 1월 13일 충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그룹홈협의회 충남지부에 공기청정기 300대를 기탁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에터미주식회사는 청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하고,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려는 열정이 대단한 기업이다. 에터미주식회사 직원 일동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덕산읍 의료 취약 계층 위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지원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천군 덕산읍의 의료 취약 계층에 마스크 3,000장과 손 소독제 400개를 지원했다. 물품은 옥외광고협회 진천군 지부가 지원한 300만 원과 충북 사랑의열매의 긴급 지원비 500만 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800만 원 상당이다. 충북 사랑의열매 이상익 사무처장은 “취약 계층을 지원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우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팬클럽 해바라기, 경로당에 삼계탕 1300마리 지원

지난 2월 11일 KLPGA 프로 골퍼 김해림(소속 삼천리)의 팬클럽 해바라기(회장 이희진)가 경북 문경시 농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715만 원 상당의 삼계탕 1,300팩을 기부했다. 삼계탕은 김해림 프로와 팬클럽 해바라기 회원들이 모은 버디 기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농암면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회원들은 “작은 정성이나마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사랑을 나눌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은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2279호



성신 소림한방병원 원장

서울
278호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

“나눔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작아도 50배 100배 큰 결실을 맺습니다.”

전북
64호



오상현 현대옥프랜차이즈 대표

“제가 성공하는 데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152호



김정사 MG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
“소중한 나눔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나눔으로
더불어 행복한 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생겨
나눔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대구
155호



박성빈 메트로아이센터 안과의원 원장

“우리 주변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56호



박명기(주)기은씨앤피 대표이사

“첫 민선 체육회장으로 취임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106호

김창기 한라산업 대표
“우리 사회가 나눔과 봉사, 배려의 마음으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193호

이연웅 前 부산은행 지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서에 서명하고 힘겹게 웃으며 업지를 치켜세우던 아버지. 이런 모습이 나눔에 대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연웅 아내 딸)



광주 108호

김영기 사회복지법인 한울복지재단 상임이사
“경제적으로 낙후하진 않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경북 111호

김동조 권웅호 아내 배우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남편과 함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경북 112호

김만석 (주)바이크윈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전 78호

이창환 대전센텀병원 원장
“대전 지역의 의료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던 중,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되어 고액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81호

이상열 유엔약품(주) 대표이사
“이번 아너 회원 가입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소외된 곳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



울산 88호

전영도 일진기계(주) 대표이사
“나눔으로 행복한 울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89호

이치운 (주)덕양 대표이사 회장
“나눔이 주는 의미가 소중한 느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제주 105호

익명
“나눔은 실천해도 더 하고 싶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숙제입니다.”

- 충양 이유호,故 전제옥
- 경기 전향식 (주)영동아이앤디 대표이사
박학규 삼성전자DS 사장
양우석, 익명
- 대구 안종수 (주)태원씨엔씨건설 대표이사
- 대전 김명순
- 울산 익명, 익명, 익명
- 전남 장영철 일성레미콘(주) 회장
- 강원 신건혁 건도리횡집 사장
- 세종 임봉철 (주)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연합 회장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로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신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행복한 소식 잘 읽었습니다. 젊은 배우도 중일 계속되는 광고 촬영은 힘든데, 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카메라 앞에서 시종일 관웃는 모습은 이른 봄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번 이순재 선생님의 아니 소사이어티 가입은 광고주와 동시 기부로 진행되어 광고주와 광고 모델의 나눔 실천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어 보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조언처럼 "크고 작은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씀을 잘 새기면서 적게 가졌건 많이 가졌건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그날을 꿈꾸어봅니다. - 하지우 경기도 김포시

○ 의정부시일시청소년센터 포텐 기사는 거리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소식이어서 맘이 흐뭇했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일반 청소년 센터와 달리 이동형 센터는 버스를 타고 야간에 활동하며, 거리로 직접 나가 위기의 청소년을 도와주고, 진로서비스에서 전문 의료진의 1차 진료 상담과 응급처치, 위급 시에는 2차 진료 동행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거리 청소년이 제일 꺼리는 진료 기록이 남지 않아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동형 포텐이 활성화되어 단 한 명의 거리 청소년도 방황하거나 건강을 잃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희 서울시 마포구



○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음을 6년째 공병 판 금액으로 매년 실천하고 있는 김정선·배영임 부부! 이 부부를 보며 그동안 각종 핑계를 대며 나눔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고령의 나이도, 몸이 아픈 것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것도 결코 문제 될 수 없음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도 올해 작은 기부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려고 결심했습니다. 2020년 <사랑의 열매> 1월호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쉬운 기부'부터 찾아보고 실천해보려고요. 유명인의 거액 기부도 물론 좋지만, 이 부부처럼 우리 주변 소시민의 작지만 큰 나눔의 사례를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 김지영 경북 경산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담요



텀블러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김응수
×
사랑의열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몇 개가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잉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